

제 2장 연주현씨 본관(本貫)과 통합 과정

延州玄氏(연주현씨)의 始祖(시조)이신 門下侍郎平章事(문화시랑평장사) 諱(휘)覃胤(담윤)公(공)은 延山君(연산군) 封君地(봉군지)인 延州(연주)를 本貫(본관)으로 정하고 世系(세계)가 始作(시작)되었지만, 後孫(후손)들이 벼슬길을 따라 이주한 世居地名(세거지명)을 借名(차명)하여 본관을 따로 정하면서 살아왔다. 연주(延州)를 비롯해서 성산(星山), 창원(昌原), 순천(順天), 천령(川寧) 등이 대표적인 본관이다. 세거지명을 따라 본관을 정하다보니 최대 106본까지 늘어났던 본관은 현재 50여개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씨는 연주(약 56,000명), 성주(약 16,000명), 창원(약 2,000명), 순천(약 1,400명) 기타(약 12,000명)로 되어 있다.

1) 성주현씨 (星州玄氏)

성주현씨 (星州玄氏)는 시조의 장남이신 諱(휘)德秀(덕수) 병부상서 성산군 (兵部尙書, 星山君)을 중시조(中始祖)로 한다. 현덕수 장군의 후손들이 벼슬길에 따라 경상북도 성주(星州)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산건치연혁(星山建置沿革)>을 보면 성산은 원래 신라 본피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에 신안 현으로 고쳐서 리산군(里山郡)에 붙였다가 그 후 다시 벽진군으로 바꾸었으며, 고려 태조 때에 경산부로 개칭하였고 경종 때에 광평군으로 승격시켰다가 또다시 성종 때에 이르러 대주로 바꾸고 현종 때에 성산부로 개칭하였으며, 그 후 충열왕 때 흥안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그 후 또다시 성주로 하여 목사를 두었다가 충선왕 때에 성주부로 되었다. 조선조에 와서 태종 때에 조곡산에 어태(御胎)를 안치하고 성주로 승격시켜 牧使(목사)를 두었다. 성주 현씨는 팔거(八莒)현씨로도 불렸다. 팔거(八居, 지금의 대구 지역)는 성산 동쪽 12리에 있다. 신라 때는 팔거현(八居縣)이라 하고 또 인리현이라고도 불리다가 경덕왕 때 또 다시 팔리라고 고쳐 수창군에 붙였다. 고려에서는 다시 팔거로 개칭하였으며 그 후에 거(居) 자(字)를 바꾸어 거(莒) 자(字)로 고치었으며 현종 때에 와서 본주에 소속하여 칠곡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2) 창원현씨 (昌原玄氏)

창원현씨 (昌原玄氏)는 시조의 삼남이신 諱(휘) 德裕(덕유) 대사공 회원군(大司空 檜原君)을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있다. 공(공)이 벼슬길에 따라 경상남도 회원(檜原, 지금의 창원 지역) 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후손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본관을 창원으로 정한 것이다. <회원건치연혁(檜原建置沿革)>에는 ‘여지승람을 살펴보면 회원은 원래 신라 골포현으로서 신라 경덕왕 때에 합포로 고쳐 의안군에 소속하게 하였으며, 고려 현종 때에 의안과 합포를 합쳐서 금주에 소속토록 한 후 다시 회원으로 바꿨다. 고려 충열왕 때에 원나라 세조가 동쪽을 정벌할 시 공로에 대하여 상을 주는 의미에서 의안을 고쳐 의창으로 했고 두 고을을 다 같이 현령으로 승격하였다. 조선조 태종 때에 두 현을 합하여 지금 창원으로 고치었으며 부로 승격시켰고 그 뒤에 도호부로 고쳤다’라고 되어있다.

3) 순천현씨 (順天玄氏)

순천현씨 (順天玄氏)는 2세조 諱(휘) 德秀(덕수)의 둘째 아들인 3세조 諱(휘) 元羔(원미) 영동정 순천부원군(令同正 順天府院君)을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있다. 공(공)도 역시 벼슬길을 따라 순천지역에 정착하면서 그 후손들이 순천을 본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천령현씨

2세조 諱(휘) 德秀(덕수)의 세째 아들인 3세조 諱(휘) 元憲(원빈)의 후손인 9세조 玄守(현수)가 驅州牧使(여주목사)를 지내며 그 후손들이 여주 천녕촌에 대대로 살게 되면서 본관을 천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일, 성산, 연천, 연안, 함안, 하양, 영천, 정주 등 지역을 본관으로 삼고 있는 현씨들이 있다. 이와 같이 본관이 다른 현씨들도 모두 延州 玄氏에서 분관(分貫)되었다는 것이 통설이고, 근래에는 대부분 延州 玄氏 단일본으로 하고 정정하고 있으나, 본관 정정을 위해서는 필히 법원의 승인과 행정관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관 정정이 단순치는 않다.

5) 연주현씨로 본관을 통합하는 과정

1747년(영조 23) 최초의 대동보(大同譜)인 정묘보(丁卯譜)를 편수할 때, 玄氏(현씨)는 諱(휘)覃胤(담윤)公(공)을 始祖(시조)로 모시는 同祖同根(동조동근)의 後孫(후손)임을 공지하면서 本貫(본관)을 延州(연주)로 통일하여 단일본을 이루게 하였다. 정묘보를 편수할 때 현씨의 본관을 연주(延州)로하고 諱(휘) 覃胤(담윤) 公(공)을 始祖(시조)로 모셔야 하는 당위성은 당시 우리 선조들과 당대의 뛰어난 유학자들과의 논의를 걸쳐 결론을 냈다는 역사적 사실이 정묘보 문목(問目)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延州 玄氏 大同譜(연주현씨 대동보)는 6~7修譜(수보)에 일부 家系(가계)에서 收單(수단)에 참여하였고, 8修譜(수보)인 庚辰譜(경진보)와 전자족보인 9修譜(수보) 때, 남한의 거의 全体 門中(전체 문중)이 참여했으며 현재에도 본관 통합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정묘보(丁卯譜)에 시조(始祖)와 단일본에 관한 질의 및 대답을 정리한 문목(問目)은 다음과 같다.

정묘보(丁卯譜) 질문의 조목(條目)

- 현행복(1956년생, 목사공파29세, 전 제주문화원장)이 역주(譯註)한 것을 인용하였다

【원문(原文)】

永纔功總而袒免優與路人而無別雖欲孝悌安從而得此乃吾譜
之不可無成也顧此衰慵敢云相役亦與有養性者不可終默遂演
孝悌之義而以廣吾宗族
歲在甲子端陽節侍郎公二十五世孫在升敬序
丁卯譜問目
問命直家氏貫書以星州八莒縣蓋玄氏本延州人也以麗朝兵部
尚書諱德秀爲始祖而麗史述尚書公事蹟曰延州人又曰與其父
將軍覃胤云云則尚書公考諱字如是昭載於國乘而自前以尚書
公爲始祖將軍公則錄於旁註蓋以尚書公移封星山君而子孫因
爲氏貫故也今方修譜而各處單子或以將軍公爲始祖或以尚書
公爲始祖若以將軍公爲始祖則優非星州之玄又以將軍公爲旁
註則於義果未安何以則合於道理耶且尚書公有二弟一爲廣城

<그림 (2)> <정묘보(丁卯譜)> 문목(問目) (1)

【판독(判讀)】

丁卯譜¹⁾問目

問 命直²⁾家 氏貫 書以星州八莒縣 盖玄氏本延州人也 以麗朝 兵部尙書 諱德秀爲始祖 而麗史述尙書公事蹟 曰延州人 又曰 與其父將軍覃胤云云 則上書公考諱字 如是昭載於國乘³⁾ 而自前 以尙書公爲始祖 將軍公則錄於旁註⁴⁾ 盖以尙書公移封星山君 而子孫因爲氏貫故也 今方 修譜 而各處 單子⁵⁾ 或以將軍公爲始祖 或以尙書公爲始祖 若以將軍公爲始祖 則僂⁶⁾非星州之玄 又以將軍公爲旁註 則於義果未安 何以則合於道理耶 尙書公有二弟 一爲廣城

【해석(解釋)】

<정묘보(丁卯譜) 질문의 조목>

▶ **자경(子敬) 현명직(玄命直)의 물음[問]** : 현명직(玄命直)의 집안에선 성씨의 본관을 ‘성주(星州) 팔거현(八莒縣)’이라고 써왔습니다. 대개 현씨는 본래 연주인(延州人)인데, 고려조(高麗朝) 병부상서(兵部尙書) 휘(諱) 덕수(德秀)를 시조(始祖)로 삼고 있습니다. 《고려사(高麗史)》에서 서술된 상서공(尙書公) 사적(事蹟)에는 “그가 연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의 부친 장군공 현담윤(玄覃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곧 상서공 부친의 휘자(諱字)가 이처럼 나라에서 발행한 역사서에 명백히 실려있음에도 이전부터 상서공을 시조로 삼으면서 장군공은 방주(旁註)로만 달아 기록해왔습니다. 대개 상서공을 성산군(星山君)에 이봉(移封)시켜 본관을 삼으면서 자손들은 이로 말미암아 성씨의 본관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족보를 수정함에 있어 각처에서 올라온 단자(單子)를 받아보니, 한 곳에선 ‘장군공’을 시조라 하는가 하면, 다른 한 곳에선 ‘상서공’을 시조로 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장군공’을 시조로 삼게 된다면 이는 곧 성주현씨(星州玄氏)가 아닌 셈이 되고, 이제까지 장군공을 족보에서 방주(旁註)로만 처리한 일이 의리상 **진정으로** 미안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이 도리에 합치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상서공에겐 두 명의 아우가 있는데, 한 사람은 ‘광성군(廣城君)’이고, (…)

1) 丁卯譜(정묘보) : 연주현씨 족보 중 초간보(初刊譜)로서 영조(英祖) 23년 정묘년(丁卯年, 1747)에 만들어졌기에 ‘정묘보(丁卯譜)’라고 일컬어진다.

2) 命直(명직) : 현명직(玄命直, 1710~1772). 족보에 보면, 자(字)가 자경(子敬)이고 도암(陶庵) 이재(李穡) 문하에서 수학했는데, 연주현씨 판관공파 20세손이다.

3) 國乘(국승) : 나라의 역사. 국사(國史).

4) 旁註(방주) : 본문 옆에 주(註)를 달아 쓰는 것.

5) 單子(단자) : 부조나 선사 따위, 남에게 보내는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종이.

6) 僂(편) : ‘便(편)’과 동자(同字)임.

【원문(原文)】

君一爲昌原君其子孫各以封號書貫而均是一人之後故昌原之
 玄亦修送單子願爲合譜尚書公第二子子孫又書貫順天如以尚
 書公爲始祖則昌原之玄不可合譜似當以將軍公爲始祖改貫延
 州然後皆可合譜而或者則曰各派之自先書貫者今難遽改依前
 以尚書公爲始祖旁註將軍公詳錄其曲折而昌原則別附可也或
 者則曰譜冊則書以延州而合錄氏貫則從其封號而各書亦無妨
 或者則曰譜冊既書延州而各派之異貫不可諸玄當俱改以延州
 而此是人家莫重之事以改貫之由告于禮曹可也或者則曰勿論
 合譜與否不以最初所知名字爲始祖而建下一代者揆以子孫之
 心甚不安必以將軍公爲始祖改貫延州事理甚當而改貫自是私
 家之事不必告于禮曹諸說之不同如此未知何者爲是耶伏乞明
 白指教幸甚且考氏族源流諸姓譜則自將軍公以下數代書以延

<그림 (3)> <정묘보(丁卯譜)> 문목(問目) (2)

【판독(判讀)】

君 一爲昌原君 其子孫 各以封號⁷⁾書貫以均 是一人之後 故昌原之玄 亦修送單

7) 封號(봉호) : 군(君)을 봉한 이름.

子 願爲合譜 尙書公第二子子孫 又書貫順天 如以尙書公爲始祖 則昌原之玄 不可合譜 似當以將軍公爲始祖 改貫延州 然後 改可合譜 而或者則曰 各派之自先書貫者 今難遽改 依前以尙書公爲始祖 旁註 將軍公詳錄 其曲折 而昌原則別附可也 或者則曰 譜冊 則書以延州而合錄氏貫 則從其封號而各書 亦無妨 或者則曰 譜冊 旣書延州 各派之異貫不可 諸玄 當俱改以延州 而此是人家莫重之事 以改貫之由 告于禮曹⁸⁾可也 或者則曰 勿論合譜與否 不以最初所知 名字爲始祖 而逮下⁹⁾一代者 揆以子孫之心甚不安 必以將軍公爲始祖 改貫延州 事理甚當 而改貫自是私家之事 不必告于禮曹 諸說之不同如此 未知何者爲是耶 伏乞¹⁰⁾明白指教幸甚 且考氏族源流 諸姓譜 則自將軍公 以下數代 書以延

【해석(解釋)】

다른 한 사람은 ‘창원군(昌原君)’입니다. 그 자손들은 제각기 ‘군(君)’을 봉한 이름으로 본관을 삼아 왔는데, 모두 한 사람의 후예(後裔)이기에 창원현씨(昌原玄氏) 또한 수정한 단자를 보내오면서 족보에 합해지길 원했습니다. 게다가 상서공의 두 번째 아들 자손들은 본관으로 ‘순천(順天)’을 써왔습니다. 만약에 상서공을 시조로 삼게 된다면 창원현씨를 족보에 합할 수가 없기에 의당 장군공을 시조로 삼고 본관을 연주(延州)로 고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모두 합보가 가능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길, 각 지파에서 이전부터 써왔던 본관을 지금 와서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니 이전처럼 상서공을 시조로 삼고, 방주(旁註)로 장군공과 관련된 사연의 곡절을 상세히 기록하고, 창원은 별도로 부기함이 옳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하길, 족보 책에는 연주(延州)로 써서 성씨와 본관을 합쳐 기록하고 군(君)을 봉(封)한 이름을 따라 제각기 써도 무방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말하길, 족보에는 이미 연주(延州)를 써놓았기에 각 지파별로 다른 본관을 씀이란 불가한 일이기에 여러 현씨들은 당연히 모두 연주로 고쳐서 써야 하고, 이 일이야말로 한 가문의 막중한 일이기에 본관을 고쳐 쓴 사유를 예조(禮曹)에 보고토록 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는 말하길, 물론 족보를 합치는 일의 실행 여부가 최초로 알려진 바의 이름을 자를 시조로 삼지 않고 한 대 아랫사람에게 내려 미침이란 자손의 마음을

8) 禮曹(예조) : 고려 공양왕(恭讓王) 이후 및 조선 때의 육조(六曹)의 하나로서, 예악(禮樂) · 제사(祭祀) · 연향(宴饗) · 조빙(朝聘) · 학교(學校) · 과거(科擧) 등의 일을 맡아 본 중앙 행정 기관.

9) 逮下(체하) : 아랫사람에게 미치다.

10) 伏乞(복걸) : 앞드려 뵈. 존자(尊者)에게 간절히 요구함. 여기서 ‘복(伏)’은 겸사(謙辭)임.

심히 불안케 할 것입니다. 반드시 장군공을 시조로 모시고 본관은 연주(延州)로 고쳐야만 심히 타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관을 고치는 일은 절로 사적인 가문의 일이 될 터이니 부디 꼭 예조에 보고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처럼 똑같이 얹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명백하게 가르쳐주신다면 심히 다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여러 성씨의 족보에서 씨족의 원류를 고찰해보면, 장군공 이하 여러 세대가 (…)

【원문(原文)】

州玄氏自命直十一世祖以下別書以星州玄氏此亦可爲當初書貫延州之一證耶並乞照察而商諒勘破如何

答兩世之可徵既有麗史則不可沒其最初始祖之名恐當以將軍公爲始祖其下註以延州人至德秀註以封星山君子孫因貫星州德裕註以封昌原君子孫因貫昌原而摠名之曰延州玄氏族譜爲可至於改貫之說則子孫之各隨其移封而爲貫者譜中已悉其由今不必改之仍舊可矣蓋以周禮氏族之例論之則太史氏所掌有氏族之別玄乃氏星州昌原順天乃族也各從其族分書支派卒乃會其源於本氏庸何傷疑乎

右陶庵答

答人家譜書所載始祖豈皆是上古氣化之人只爲子孫之所以知之者自此始故也若譜書所載始祖之外又有名字所知及文獻可徵而當初不以此爲始祖遞下而以或子或孫始爲譜書之鼻祖則

<그림 (4)> <정묘보(丁卯譜)> 문목(問目) (3)

【판독(判讀)】

州玄氏 自命直十一世祖¹¹⁾以下 別書以星州玄氏 此亦可爲 當初書貫延州之一證

11) 命直十一世祖(명직십일세조) : 앞서 언급된 현명직(玄命直)이 연주현씨 20세손이라고 밝힌 바 있

耶 並乞照察¹²⁾而商諒¹³⁾ 勘破¹⁴⁾如何

答 兩世¹⁵⁾之可徵 既有麗史 則不可沒其最初始祖之名 恐當以將軍公爲始祖 其下註¹⁶⁾以延州人至 德秀註以封星山君 子孫因貫星州 德裕註以封昌原君 子孫因貫昌原 而摠名之 曰延州玄氏 族譜爲可 至於改貫之說 則子孫之各隨 其移封而爲貫者 譜中已悉¹⁷⁾其由 今不必改之 仍舊可矣 盖以周禮 氏族之例 論之則 太史氏¹⁸⁾所掌 有氏族之別 玄乃氏 星州 昌原 順天 乃族也 各從其族分舊支派 卒¹⁹⁾乃會 其源於本氏 庸何傷疑乎²⁰⁾ 右陶庵²¹⁾答

答 人家諸書 所載 始祖 豈皆是上古氣化²²⁾之人 只爲子孫之所以 知之者 自此始故也 若譜書所載 始祖之外 又有名字所知 及文獻可徵 而當初不以 此爲始祖 遞下²³⁾ 而以或子 或孫 始爲譜書之鼻祖²⁴⁾ 則

【해석(解釋)】

‘연주현씨(延州玄氏)’라고 써왔음이 절로 분명합니다. 한편 현명직(玄命直)의 11세조 이하로부터는 따로 ‘성주현씨(星州玄氏)’라고 써왔는데, 이것 또한 당초에 본관을 연주(延州)라고 쓴 증거 가운데 하나인 셈이 됩니다.

아울러 바라옵건대 분명히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교감(校勘)을 해주심이 어땠겠습니까?

▸ 도암(陶庵) 이재(李穡) 선생의 답(答) : 두 세대를 징험(徵驗)할 수 있음이란 이미 《고려사(高麗史)》에 있으니 그 최초 시조의 이름은 도무지 묻혀버릴 수가 없다. 조심스럽게 생각건대 마땅히 장군공으로 시조를 삼아야

기에 명직의 11세조는 세종조 통훈대부(通訓大夫)였던 현규(玄珪)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이하라고 하면 그보다 1대 아래인 현득원(玄得元, 1405~1458)을 지칭함인데, 결국 명직의 10세조로부터 성주목사공파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현명직의 직계 10세조는 전주판관을 역임한 통훈대부 현득리(玄得利)이다. 다시 말하면, ‘명직의 10세조’로부터 성주(星州)라는 본관을 새로 써왔던 셈이다.

12) 照察(조찰) : 분명히 살핌. 명찰(明察)함.

13) 商諒(상량) : 헤아리다.

14) 勘破(감파) : 알아차림. 간파(看破).

15) 兩世(양세) : 두 세대. 할아버지와 아버지, 혹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두 세대를 아울러 이름.

16) 註(주) : 본래는 주해(註解)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록하다’ 혹은 ‘기재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17) 已悉(이실) : 이미 다 ….

18) 太史氏(태사씨) : 사관(史官). 대제학(大提學)을 두고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英祖) 즉위년 11월 28일조’에 보면, 이광좌(李光佐)가 임금께 아뢰는 말 중에 “대제학을 다른 말로 태사씨(太史氏)라고도 부릅니다.[大提學之號, 一曰太史氏]”라고 한 표현이 실려 있다.

19) 卒(졸) : 마침내.

20) 庸何傷疑乎(용하상의호) : 무슨 문제 될 게 있으리라 의심하리?

21) 陶庵(도암) : 이재(李穡, 1680~1746. 도학자겸 정치가,성균관대제학역임. 논문의 중심인물.

22) 氣化(기화) : 음양(陰陽)의 기운으로 만물을 변화시킴. 음양의 변화, 또는 세사의 변천의 비유.

23) 遞下(체하) : 교대하여 내려감.

24) 鼻祖(비조) : 시조(始祖).

하고, 그 아래로 주석을 달아 ‘연주인(延州人)’이라고 밝혀야 할 것이다. 덕수(德秀)는 성산군(星山君)으로 봉해진 사실과 더불어 자손들은 그로 인해 본관을 성주(星州)로 했다고 주석으로 밝히고, 덕유(德裕)는 창원군(昌原君)으로 봉해져서 자손들은 그로 인해 본관을 창원(昌原)으로 했다고 주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총괄 명칭으로 ‘연주현씨(延州玄氏)’라고 밝힘이 옳다. 본관을 바꾸자는 설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가능하게 되려면 자손들 각자가 모두 이에 따라야만 한다. 봉호(封號)가 옮겨진 게 곧 본관이 된 것은 족보 중에 이미 다 그 연유가 실려있기에 이제 다시 그것을 고칠 필요는 없을 듯하며 옛 방식 그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주례(周禮)》에서 씨족(氏族)의 사례를 들어 논한 것을 보면, 태사씨(太史氏)가 관장하는 바의 일로 씨족을 구별함이 있었다. 이를테면 ‘현(玄)’은 곧 ‘씨(氏)’요, ‘성주(星州) · 창원(昌原) · 순천(順天)’은 ‘족(族)’이 되는 셈이다. 제각기 ‘족(族)’을 따라서 옛 지파로 나뉘었다가도 결국 본래 성씨의 근원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꼴이니,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의심하겠는가.

▸ 구암(久庵) 윤봉구(尹鳳九)註 선생의 답(答) : 일반 가문 족보에 ‘시조(始祖)’가 실려있는 까닭은, 다만 상고에 기화(氣化)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후손들의 생각에 그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족보에 실려있는 시조 말고도 알고 있는 다른 이름자가 있어 문헌으로 징험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초 이를 시조로 삼지 않고 교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혹은 아들이 혹은 손자가 비로소 족보상의 시조가 되는 셈이다.

주(註) 윤봉구(尹鳳九, 1681~1767)는 조선후기의 문신(文臣)이자 학자(學者)로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字)는 서응(瑞膺), 호는 병계(屏溪) · 구암(久庵)으로 호조 참판 윤비경(尹飛卿)의 손자이며 윤명운(尹明運)의 아들이다. 숙종 40년(1714)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청도군수 · 사헌부지평 · 장령 · 집의를 거쳐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 그 후 군자감정(軍資監正) · 대사헌 · 지돈녕에 이어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는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한원진(韓元震) · 이간(李柬) · 현상벽(玄尙璧) · 채지홍(蔡之洪) 등과 더불어 수학하였으며,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라 불리었다. 당시 성리학에 있어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에 대한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을 지지하는 호론(湖論)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사회적 · 현실적 활동보다 심성론을 주로 한 성리학자로서의 입론에 치중하였다. 시호(諡號)는 문헌(文獻)이며 저서로는 《병계집(屏溪集)》이 있다. 최초의 대동보인 정묘보의 서문을 작성하였다.

【원문(原文)】

此編譜者之失不但於義無據實不安於子孫之心矣今玄氏譜將
軍公名字事蹟既昭載麗史至錄在譜書而初不以將軍公爲始祖
者不可知矣今以將軍公特書於譜書之首以爲始祖以尚書公兄
弟繼之則事理明甚無可疑矣果以將軍公爲始祖仍以延州玄氏
族譜爲名而各因中祖封邑異其姓貫則既不免名實之相乖亦有
欠於一統之義矣鄙意統於始祖依譜書之名而三貫宜皆改以延
州也古今姓譜與貫未聞有各異之例亦合詳量也 右久庵答
謹按兩先生所答以將軍公貫鄉名譜則同而改貫之說則有異
故夏質于南塘韓先生則答曰子孫之從鼻祖書貫合譜事理明
白云云者一如久庵先生答書且諸處所論亦如兩先生所答故
合譜諸宗俱以延州改貫焉

附
延州星州檜原輿地勝覽

八
延州星州檜原輿地勝覽
郡建置沿革

<그림 (5)> <정묘보(丁卯譜)> 문목(問目) (4)

【판독(判讀)】

此編譜者之失 不但於義無據實 不安於子孫之心矣 今玄氏譜 將軍公 名字事蹟 旣昭載²⁵⁾ 麗史 至錄在譜書 而初 不以將軍公爲始祖者 不可知矣 今以將軍公 特書於譜書之首以爲始祖 以尙書公兄弟繼之 則事理明甚無可疑矣 果以將軍公 爲始祖 仍以延州玄氏族譜爲名 而各因中祖封邑 異其姓貫 則旣不免名實之相乖 亦有欠於一統之義矣 鄙意²⁶⁾ 統於始祖 依譜書之名 而三貫宜皆改以延州也 古今姓譜與貫 未聞有各異之例 亦合詳量²⁷⁾也

右久庵²⁸⁾答

謹按²⁹⁾ 兩先生 所答 以將軍公貫鄉³⁰⁾名譜則同 而改貫之說 則有異 故叟³¹⁾質于南塘韓先生³²⁾ 則答曰 子孫之從鼻祖 書貫合譜 事理明白 云云者 一如久庵先生答書 且諸處所論 亦如兩先生所答故合譜 諸宗俱以延州改貫焉

【해석(解釋)】

이는 족보를 편찬하는 사람의 실수로서 비단 의리상에서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마음을 불안케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현씨족보>에서, 장군공의 이름자와 사적은 이미 《고려사(高麗史)》에 분명하게 실려있기에 족보에도 기록되기에 이른 것이지만, 처음부터 장군공을 시조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장군공을 특별히 족보의 맨 앞머리에 시조로서 기술하고, 상서공 형제들은 그것을 계승한 것으로 하면, 사리가 매우 분명하고 의심할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장군공을 시조로 삼고, 이에 ‘연주현씨족보(延州玄氏族譜)’라고 이름을 붙였음에도, 제각기 중시조를 봉읍(封邑)했기 때문에 성씨와 본관을 달리한다면 이는 명칭과 실질이 서로 어긋나게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하나로 통합하는 의의(意義)에 있어서도 흠결이 생기게 된다.

25) 昭載(소재) : 분명하게 실려있다.

26) 鄙意(비의) : 나의 뜻. 여기서 ‘鄙(비)’는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된 사물에 붙이는 겸사(謙辭)이다.

27) 詳量(상량) : 상세히 헤아리다.

28) 久庵(구암) : 윤봉구(尹鳳九)를 두고 이름이다.

29) 謹按(근안) : 삼가 상고하건대 ….

30) 貫鄉(관향) : 시조(始祖)의 고향. 본관(本貫). 관적(貫籍).

31) 叟(경) : 다시. ‘叟(경)’은 ‘更(경)’과 동자(同字)임.

32) 南塘韓先生(남당한선생) : 조선 후기 때의 학자인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을 두고 이름이다. 한원진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 성리학의 중심 과제에 두루 미치고 있었고,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실학이 남인 학자층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이이(李珣)-송시열(宋時烈)-권상하(權尙夏)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낙론(洛論)인 이간(李柬)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주장에 반대하여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고 주장한 인물성이론을 대표하였다. 저서로 《남당집(南塘集)》,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攷)》 등이 있다. 강문팔학사의 한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는, 시조를 통합하되 족보 책의 이름에 걸맞게 세 개의 본관은 의당 모두 연주(延州)로 고쳐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씨의 족보에서 본관이 제각기 다른 사례가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진실로 자세히 따져보고 하나로 합쳐야 할 것이다.

▸ **질의자 현명직(玄命直)의 의견** : 삼가 두 분 선생의 답변을 상고해보건대, 장군공을 관향명(貫鄉名)으로 족보에 쓰자는 데는 같은 생각이면서도 본관을 바꾸자는 설에 있어선 다른 견해를 보이셨다. 또다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선생께 질의를 드렸더니, 답하시길 “자손들이 비조(鼻祖)를 따라서 본관을 쓰고 족보를 합치는 일은 그 사리가 명백하다.”라고 했다. 여러 의견들이 한결같이 구암(久庵) 선생께서 답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각 처에서 내는 의견들이 두 분 선생께서 답한 내용과 같으므로, 족보를 하나로 합치기로 한다. 여러 종친께서는 모두 ‘연주(延州)’를 본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